【 2019.4.5(금) 강원일보 】

건설협회 도회-도 도로관리사업소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4일 원주시 우산동 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 도내 건설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19.4.5(금) 강원도민일보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간담회

신관호 gwanho@kado.net 2019년 04월 04일 목요일

댓글 0 폰트

▲ 오인철(사진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4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 강원 건설업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복역 중 배운 미술 덕분에 삶이 변했습니다"

대구교도소 무기수 A씨
전제원 교정위원에 감사편지

구정민 koo@kado.net 2019년 04월 04일 목요일

댓글 0 폰트

40대 무기수가 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의 교화 노력에 감사 편지를 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구교도소에서 무기수로 6년째 복역중인 A(47)씨는 최근 전제원(사진) 강릉교도소 교정위원에게 5장의 자필 감사 편지를 보냈다.A씨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이자 무기수인 저를 탈바꿈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도움을 준 덕분에 조금씩 변화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전 교정위원은 지난 2017년 3월 A씨와 인연을 맺었다.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수감자 B씨의 소개로 직접 대구교도소를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됐다.전 교정위원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A씨의 사연에 도울 일을 고심하다가 그림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자리에서 400만원 상당의 미술 재료를 선물했다.이후 매달 10만원씩의 영치금을 보내주면서 A씨의 작품활동을 도왔고,A씨는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도 거뒀다.전국교정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전제원 교정위원은 "다른 수감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등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 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정민

【 2019.4.5(금) 건설경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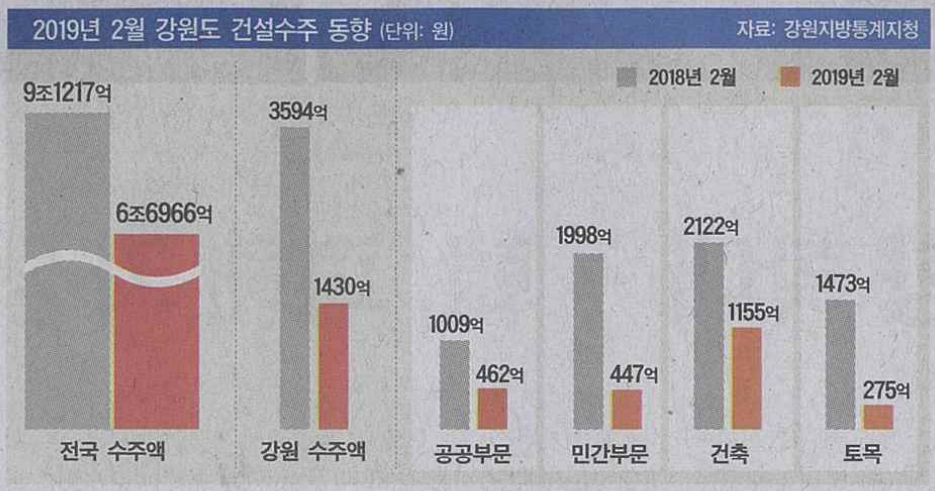
건협 강원도회 운영위…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 발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3일 강원도 춘천시 도 건설회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보고사항 발표와 부의사항 심의, 의결, 기타 협의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2018년 회계연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발표됐다. 부의사항으로는 제1호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의 건, 제2호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제3호 제61회 정기총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부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 2019.4.5(금) 건설경제 】

평창올림픽 이후 '물량 기근' '수주 보릿고개' 갈수록 심화

강원지역 2월 수주액 1430억원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0% 감소
올 누적 수주액은 91%나 급감
공공물량 축소, 지역경제 직격탄



강원도 건설업계의 수주 가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도 종합건설사의 수주액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건설사 매출 중 공공공사 비중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강원도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4일 동북지방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회 회원건설사들의 건설수주액은 투찰금액 기준으로 2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21억원) 대비 19.11%(501억원) 감소한 수치다.

수주액 감소는 공사 일감 자체가 줄어든 결과다. 같은 기간 수주 건수는 277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13.4%(43건)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까지 강원지역 수주 가뭄은 더욱 심각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강원지역 건설수주액은 1430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2% 감소한 수치다. 전국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2월 6조6966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6%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강원 지역 수주 부진이 전국 대비 두드러진다.

특히 올 들어 2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보면 강원 지역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대비 91.4%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주자별로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수주 실적이 고꾸라졌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로.교량, 신규 주택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5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2월 수주액은 462억원에 그쳤다. 민간부문에서는 신규 주택, 사무실, 점포, 오락, 숙박시설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7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부문에서는 신규 주택, 사무실, 점포, 오락, 숙박시설 수주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45.6% 감소했다. 토목 부문은 공공 공사 발주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토목 부문에서는 도로.교량, 발전.송전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8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공, 교량 등 인프라 공사 비중이 집중된 강원도 건설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체는 역내 발주공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 발주 공사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셈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강원도 지자체 발주 공사의 강원도 소재 건설업체 계약실적은 2012년 6835억원에서 2016년 8118억원으로 18.77%(1283억원) 증가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 도 지역건설업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